

**2017년 9월 3일 “찾아오신 예수님(40)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요 17:13~19)**

지난 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에 이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비십니다.

**[1]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영적 삶의 특징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별됨을 뜻하는 성경 단어가 ‘거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말하고 그 백성들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들(영어로 saints)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준이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된 존재라는 뜻에서는 맥을 같이 합니다. 본문에서 악으로부터 보전되어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 악으로부터 보전(15 절)**

세상에서는 ‘악’을 사회와 역사 속에서 자행된 악랄하고 무자비한 행동, 살인, 이기심으로 타인/사회를 오염하는 것, 싸움, 협박 등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악인데 악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 8 장을 보면 예수님은 악을 세상에 발생시킨 마귀를 언급하십니다. 마귀는 무엇을 한다고 하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8:42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이들은 거짓에 속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는 것이 인간의 악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을 모르며, 또한 진리이심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로 사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예수님에 대한 통찰을 주는 세 사람:

- (1) 필립 양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 (2) 헨리 나우엔 “상처입은 치유자” “탕자의 귀향”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 (3) 톰 라이트 “Jesus 코드”

**[3] 진리로 살아 내신 거룩의 삶**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고 참 사랑의 진리로 점철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군림함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신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분의 사랑이 왕 되심의 증명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악)에 속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시고,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상황을 control 하시지 않은 것은 거짓에 속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한 모습일지라도 그분 안에는 섬기는 능력이 있었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부끄러워 않고 세상의 거대한 세력에 맞서며, 자신 안에서 사랑을 솟아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의 교제를 지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과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롬 5:8, 10).

한편 인간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죽을 때까지 자기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덜 짓고, 안 짓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자기 이미지를 높이려 한다면) 자신의 죄성과 모습을 보지 못하는 나르시시스트, 자기 도취자(거짓에 속은 자)입니다. 의학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병적 상태는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스콧 펙, “그리고 저 너머에” 자기도취 = 사고의 무질서 상태)

아기는 자기 도취자로 태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개월까지 자신과 세상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자기도취에서 빠져나오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에게 베푸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마 7:12). 이것은 인간이 거짓으로부터 진리로 옮겨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짓과 악에 빠져도 빠진 줄 모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가볍다고 믿으면 사람과 잘잘못을 가리며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에 속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진리가 진짜 영생의 삶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정죄, 비교, 판단, 지적으로부터 떠나서 오히려 죄인을 보면 긍휼과 연민을 느끼시고,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 5:3)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도 정죄와 비교, 판단, 지적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참 사랑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들(먼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악(거짓)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여 주시며, 진리(참 사랑)로 거룩하게(구별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의 길에 이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와 거짓을 외면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다 품으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 발생한 모든 나의 죄와 죄성을 품으셨고, 그 품으심 속에서 그분과 나 사이에 생명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길(진리의 길)만이 내가 악으로부터 보전되어 구별되는 길입니다. 그 품으심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의 주님의 살과 피(빵과 포도주)가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품으시고 거룩의 구별된 길을 열어 주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통해 거룩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들>

1.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악은 무엇입니까? 나는 악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세상은 악한 행위를 '악'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심으로써 거짓이 악의 시작임을 말씀해 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악으로부터 보전되는'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3.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묵상이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거짓을 밝혀 거짓으로부터 해방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변화를 주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4.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덕성과 그에 따른 노력이 마귀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대책이 될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또 사회적 차원에서 말씀할 것이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